

한국의 겨울 세시풍속



진성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겨울철의 24절기

겨울에 있는 24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10월에는 입동(立冬)·소설(小雪), 11월에는 대설(大雪)·동지(冬至), 12월에는 소한(小寒)·대한(大寒)이 있다.

입동은 설 립(立), 겨울 동(冬)으로써 ‘겨울에 들어서다’ 혹은 ‘겨울이 시작되다’의 뜻이다. 입동은 양력 11월 8일경이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겨울이 점차 시작하는 날이다. 예전에는 대체로 입동 전후로 김장을 담갔으나 요즘은 늦어지는 추세이다. 입동 전후의 김장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이는 입동이 지난 지 오래 되면 배추가 얼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음력 10월 10~30일 사이에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고 이웃끼리 나누어 먹기도 했다.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입동에 추우면 그해 겨울은 몹시 춥다고 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입동에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바람이 매우 세게 불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설은 작을 소(小), 눈 설(雪)으로써 ‘적은 눈이 내리다’의 뜻이다. 소설은 양력 11월 22일이나 23일경이며 대체로 입동이 지난 후 첫눈이 내릴 때 소설에는 눈이 적게 내리고 대설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설 추위는 빗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첫얼음과 첫눈이 찾아드는 소설에는 시래기를 엮어 매달고 무말랭이, 호박 오가리, 꽃감 말리기 등 대대적인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겨울 기분이 들면서도 따사로운 햇살이 있어서 ‘소춘(小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음력 10월 20일 무렵에는 바람이 심하고 날씨가 추워져 외출을 삼가며 뱃길에 주의해야 했다. 고려시대

에 왕이 배를 타고 통진과 강화 사이를 지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왕은 사공이 고의로 배를 흔들어 그런 것이라고 호령을 하고 사공의 목을 베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공의 이름이 손돌이었다. 그래서 손돌이 죽은 곳을 '손돌목'이라 불렀다. 해마다 이날 '손돌목'을 지날 때면 강풍이 불고 날씨가 차가웠는데 이것은 손돌의 원혼 때문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그 후로부터 소설 무렵에는 가능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대설은 큰 대(大), 눈 설(雪)로써 '큰 눈이 내리다'의 뜻이다. 대설은 양력 12월 7~8일경이며, 대체로 이 무렵 많은 눈이 내린다 하여 대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화북 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눈이 많이 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2월보다 오히려 1월이나 2월에 평균적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린다. 한편, '대한 때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눈이 많이 덮인 보리밭에서는 보온이 잘 되어 보리 싹이 눈 아래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지는 겨울 동(冬), 지극할 지(至)로써 '겨울의 기운이 지극하다'의 뜻이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23일경이며, 음력으로 동지가 있는 달을 동짓달로 불렀다.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면,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추위는 대략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대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고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도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혹은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동짓날에는 동지팥죽을 먹는데 팥을 끓여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팥죽이 완성되면 먼저 조상의 사당(祠堂)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팥죽에는 귀신을 쫓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팥의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짓날에는 임금에 새해의 달력을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 나누어주었다. 관리들도 서로 달력을 선물하였으며 이조(吏曹)에서는 지방 수령들에게 표지가 파란 달력을 선사하였다. 동짓날이 부흥을 뜻하고 이날부터 태양이 점점 오래 머물게 되어 날이 길어져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새 달력을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매년 동지 무렵이 되면 제주목사는 특산물인 꿀을 임금에게 바쳤다. 이것을 기념하여 임시 과거를 실시했는데, 황감제(黃柑製)라고 불렀다. 이 밖에도 동짓날 부적으로 뱀 '사(蛇)'자를 써서 벽이나 기둥에 거꾸로 붙이면 악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으며, 동짓날 날씨가 따뜻하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많아지고, 눈이 많이 오며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다.

소한은 작을 소(小), 찰 한(寒)으로써 '조금 춥다'의 뜻이다. 소한은 양력으로는 1월 5~6일에 해당한다. 중국 화북 지방에서는 대한(大寒) 다음으로 추운 때라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때의 날씨가 변덕스러워 1년 중 가장 추운 경우도 있고 겨울철로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예로부터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추운 해도 많지만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따뜻한 해도 많아서 이 날을 전후한 시기의 평균기온이 대한과 입춘 즈음보다 높은 편이다.

대한은 큰 대(大), 찰 한(寒)으로써 ‘많이 춥다’의 뜻이다.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써 양력 1월 20일경이다. 중국의 경우에 겨울 추위는 입동에 시작하여 소한이 다가올수록 추워져 대한에 이르면 최고로 추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소한이 있는 1월 15일경이 가장 추운 편이다. 예로부터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혹은 “소한에 언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말이 있는 것도 대한이 그리 춥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사와 집수리를 비롯한 집안 손질은 언제나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에 하는 풍습이 있었다.

겨울철의 명절과 세시풍속

겨울철 대표적인 명절과 세시풍속으로는 10월의 상달[上月]고사와 11월의 날짐승점과 동지부적, 12월의 선달그믐과 신구간 등이 있다.

상달고사

상달고사란 음력 10월에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가신(家神)들에게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고사라는 말은 세시 풍속상에서 안택(安宅)이라는 말과 혼동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양자가 가정 단위의 제사이며, 아울러 성주·조상·티주·조왕·삼신 등 모시는 대상 신들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사는 주로 상달고사를 말하며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강하다. 반면 안택은 주로 정월에 행해지며 연초의 액막이와 행운 기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사 혹은 안택이라는 이름은 중부를 포함한 중부이북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영호남지방에서는 도신(禱神) 또는 도신제라 부른다.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 1948)』에서 ‘고시례·고사·굿’을 같은 어원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례를 ‘고시례’라 하고, ‘고사’는 굿의 규모는 아닌 중간 정도의 의례를 말하며, 장구를 울리고 무악(巫樂)을 갖추어 춤을 추는 등 규모가 가장 큰 의례를 ‘굿’이라고 하였다.

상달고사의 유래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10월이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써 열 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불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달에는 예로부터 무수한 종교적 행사가 전승되어 왔다.¹⁾

상달고사를 지낼 때는 좋은 날을 가려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안으로 부정한 것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는데, 떡은 떡의 썬을 만든 시루떡과 썬이 없는 백설기를 만든다. 백설기는 산신(産神)인 안방의 제석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제물은 안방을 비롯하여 사랑방, 머슴방, 나락가리, 쌀 뒤주, 장광 등 집안의 곳곳에 조금씩 차려 놓는다. 의례는 대개 주부가 담당하는데 제물을 차린 후 배례를 하고 손을 모아서 빌거나 축원을 하며 기원한다. 기원하는 대상 신은 집안의 풍요와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는 가신(家神)²⁾들이다. 이때는 떡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상례이다. 고사를 조금 크게 행하고자 할 때는 무당이나 중을 청하여 행한다. 무당을 청하여 고사를 행할 경우는 제금만을 올리면서 축원을 하여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중을 청하여 고사를 행할 경우는 떡을 하지 않고 간단히 고사반(告祀盤)³⁾을 만들어 놓고 중이 염불을 읽는다. 실타래는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의 장수·건강을 비는 뜻이 강하다.

날짐승점

날짐승점이란 동짓날에 날짐승의 움직임과 보고 길흉(吉凶)을 점치던 풍속을 말한다. 날짐승점은 지방에 따라서 동짓날 저녁에 보기도 하고 정초에 보기도 한다. 흔히 날짐승 가운데 까치를 길조(吉兆)로 여겨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믿는 반면, 까마귀, 매, 솔개, 독수리는 흉조(凶兆)로 여겨 이 새가 가까이에서 울거나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불길하게 생각했다.

예컨대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는 소리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서는 독수리에 관심을 두고 보는데, 특히 초도리에서는 독수리가 정초에 마을을 날아다니면 불길할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다가 누구 집이든 그 위에서 고개를 숙이면 그 해에 그 집은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부산에서는 동짓날 저녁에 날짐승이 마을 또는 지붕 위를 높이 떠서 날아가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낮게 뜨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동짓날의 날짐승을 보는 것 외에도 전남에서는 원일(元日)에 날짐승이 일찍 움직이면 풍재(風災)가 든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 특히 까마귀가 먼저 지저귀거나 동(動)하면 바람이 세다 하여 그 해 병이 흔할 것으로 믿었다.

1)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부여의 영고(迎鼓) 등 추수감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제천의식이 있었다. 고려 때에는 팔관회(八關會)가 그 맥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민가에서 '고사' 혹은 '안택'으로 전승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가신(家神)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가신들로서 터주신·성주신·제석신·조왕신 등에게는 배례와 축원을 하고, 이 밖에 칠성신·축신·마당신·문신 등에는 제물만 놓는다. 가신이 아닌 마을수호신에게도 제물을 차려 배례와 축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물만 차려 놓는다.

3) 고사반은 그릇에 쌀을 수북이 담아놓고, 실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세워 꽂아 놓은 것을 말한다.

제석에는 상사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생치(生雉)·전복·
 어란(魚卵)·육포(肉脯)·곶감·대추 등을
 선물하여 문안하였고,
 지금은 주로 고기·생선·과일·술 등을
 보내서 인사한다.



동지부적

동지부적이란 동지(冬至)를 맞아 부역의 벽이나 기둥에 붙이는 부적(符籙)을 말한다. 동지는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동시에 동지를 시작으로 하여 해가 길어진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양기(陽氣)가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옛날부터 동지를 새해로 보기도 하였으며 '아세(亞歲)'나 '작은설'로도 불렸다. 동지가 되면 설날 대문에 붙이는 문배(門排)와 마찬가지로 동지부적을 붙여서 잡귀를 쫓는 풍속이 전해온다. 이것은 그 해의 시작이 되는 날 문에 부적을 붙이면 1년 동안 벽사초복(辟邪招福: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부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풍속이다. 동지팥죽으로 잡귀를 물리치는 행위도 동지부적과 같은 성격의 세시풍속이다. 민간에서는 동지에 맞춰 대문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는데, 뱀 '사(蛇)'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풍속이 널리 행해졌다.

선달그믐

선달그믐은 제석⁴⁾이라고도 불렀는데, 제석의 풍속으로는 먼저 궁궐에서 지내는 '연종제(年終祭)'와 '묵은해 문안', 민간에서 행하는 '묵은해 세배', '수세(守歲)', '세찬(歲饌)' 등이 있다.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로써 세밑, 눈썹 세는 날, 제석(除夕), 제야(除夜), 제일(除日), 세제(歲除), 세진(歲盡) 등으로도 불린다. 이날을 제석(除夕)이라고 하는 것은 제(除)가 구력(舊曆)을 혁제(革除: 바꾸고 제거)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벽녘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다. 이러한 수세(守歲: 한

해를 지킴) 풍습은 송구영신(送舊迎新: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함)의 의미로써 우리나라에 역법(曆法)이 들어온 이래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달그믐에는 연종제(年終祭), 묵은세배[舊歲拜], 수세(守歲), 만두차레, 나례(儺禮: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 신구간, 약태우기, 연말대청소, 이갈이예방, 학질예방과 같은 풍속이 전해진다. 또한 내의원(內醫院)⁵⁾에서는 벽온단(辟瘟丹)⁶⁾을 진상(進上)하기도 했다.

연종제란 궁중에서 한 해가 끝남을 기념하여 지내는 의식으로써 조선조 말기까지 궁중에서 시행되었다. 이때 악귀를 쫓는다고 하여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제금과 북을 울리면서 궁궐로 두루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를 '나례(儺禮)'라고 한다. 한편 옛날 제석에는 상사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생치(生雉)·전복·어란(魚卵)·육포(肉脯)·곶감·대추 등을 선물하여 문안하였고, 지금은 주로 고기·생선·과일·술 등을 보내서 인사한다. 주부들이 세찬을 만들 때 남자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외양간을 청소하고 거름도 퍼내며 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것은 묵은해의 잡귀와 액은 모두 물러가고 신성한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묵은세배란 설달 그믐날 저녁에 사당에 절하고 설날 세배를 하듯 어른들에게 절하는 것을 말한다. 묵은세배는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만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시집간 딸들이 친정 부모나 친척집에 가서 세배를 하는 것을 '망년과세(忘年過歲)'라고 불렀다. 전라도 진도 지방에서는 설을 앞두고 '뿔뿔기'라고 하여 자손들이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여 '명일(名日)이바지'를 하기도 했다.

수세란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방과 뜰, 부엌과 곶간, 변소 할 것 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 놓고 잠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부뚜막 술 위에 불을 밝히는 것은 조왕신을 위한 것이었다. 만약 이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밤새도록 옷눌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웠다. 옛날 궁중에서는 제석날 70세 이상 되는 조관(朝官)과 명부(命婦)에게 쌀과 생선 등을 하사하였다.

4) 1년의 마지막 날인 설달 그믐날 밤을 제석(除夕) 혹은 제야(除夜)라고 하는데, 이는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뜻이다. 매년 12월 31일 자정(子正)에 보신각(普信閣)에서 새해를 알리는 종을 치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제야(除夜)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醫藥)을 맡은 관청

6) 임금을 위해 특별히 조제한 한약(韓藥)

신구간

신구간이란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 약 일주일간을 말한다.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어나 집수리를 비롯한 집안 손질을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예로부터 묵은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 사이에 구년세관(舊年歲官)의 신들이 신년 세관(新年歲官)의 신들과 임무를 교대한다고 믿었다. 특히 이 기간은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수호·관장하던 신들이 한 해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의 옥황상제 앞으로 올라가며, 새로 내려올 신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신들의 부재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때에는 불길한 날이나 길일(吉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날을 가리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집과 변소를 고치거나 집 울타리 안의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혹시라도 신구간이 아닌 시기에 조왕(부엌), 정낭⁷⁾, 통시(변소), 쇠막(외양간)을 고치거나 집의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울타리 안에서 흙을 파는 일, 울담(울타리 돌담)을 고치는 일 등을 하면 집 울타리 안 각각의 곳을 관장하는 신 때문에 동티[動土]⁸⁾가 난다고 생각했다.

7) 제주도의 옛날 대문에 가로로 걸쳐놓는 굵은 나무가지.

8) 동티란 신의 노여움으로 다리·눈·머리·목·가슴 등이 아프거나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게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왕, 고팡[고방(庫房: 창고)의 제주어], 변소 등의 동티는 대개 눈이 아픈 것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심한 동티가 생길 경우에는 심방(무당)을 데려다가 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신구간의 풍습이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신구간에 이사가 집중되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일도 대개 신구간에 맞추기도 한다.